

99대 1

「당신들은 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하늘에서 항상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그대로 두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이 주는 기쁨이 더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당신들의 아버지께서는 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 18:10-14)

오늘 이 자리는 1976년도 인권주간의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연합 예배를 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해마다 10월 10일은 세계 인권선언 선포를 기념하는 주간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이차 대전이 끝나자, UN에서는 세계 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이 기초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세계 교회협의회에서는 이 선언문 가운데 종교의 자유의 항목을 삽입하고 모든 자유의 근원이 신앙의 자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언론 결

사의 자유라는 생각은 꼼꼼히 따지고 보면 신앙의 자유를 원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자유,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유며 언론의 자유이고 고백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주적인 권리의 바탕이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처럼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신구약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고백, 주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임, 교회의 결사의 자유를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독단적인 말인지 모르지만 지난 몇 해 동안,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복음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복음의 이해 없이는 인권의 진정한 문제성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근본적인 뜻이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권을 말할 때 무엇이 인권이고 무엇이 인권과는 관계가 없는가를, 짚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학설이나 교리로써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한 인간이 살아나가는 생활의 전부, 그의 생활 양식, 느낌·좌절·절망·실연, 그리고 소망과 감사, 기쁨 전체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언제나 구

체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이론으로는 복음의 내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로 교회가 다원화되어 가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져가게 됨에 따라, 사람들이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옳지 못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갑니다. 무엇이 더 해로운가 하는 데 가치 판단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이로우면 다 옳고 옳은 것이며, 해로운 것이면 다 옳지 못하고 나쁜 것이라고 단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복음적인 가치관보다 이해관계의 가치관이 더욱 강해진 탓으로 인권은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은 손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권리(right)인 동시에 무엇이 옳은가(right)의 문제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옳은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파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척도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적어도 한 나라의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무기한으로 자유가 유보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2. 교회의 집회나 교역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정부라고 해서 고발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3. 국민의 알아야 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옳지 못한 일이다.
4.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생존권을 위한 단체 교섭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5. 정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자료 몰아 몇 해 동안이나 감방에 구속하는 일은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일인가?

1. 인간이 인간으로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기의 존엄성을 지켜가며 산다는 것이 옳은 일이다.
2. 자기의 생각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남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남을 비판할 줄 아는 것은 옳은 일이다.
3.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노동의 댓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정직하게 일해서 일한 만큼 수입을 받는 것은 옳은 일이다.
4. 어떠한 나라의 국민이든지 자기를 다스릴 사람을 스스로 선택해서 뽑는 것이 옳은 일이며 또 자신들이 지켜야 할 법 체제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발언과 비판을 하는 것도 옳은 일이다.
5.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의견, 특히 양심적인 소신을 밝히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인권에 관해서 말할 때 권리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옳고 그른 윤리적 차원에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옳고 그른 판단을 내리게 하는 가치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고 반문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문제는 복음의 내용에서 규정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흔히 우리는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길 잃은 어린 양의 비유라고 해왔습니다. 백 마리의 양 떼가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서 무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아혼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서 험한 계곡으로 갔습니다. 겨우 찾게 되자 그는 그 기쁨을 남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큰 잔치를 벌인 다는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너무나 감상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불쌍한 어린 양, 삐딱해진 양, 제 무리를 떠난 철부지 양을 목자는 끝까지 버리지 않지 아니하고 그를 찾아다녔다는 내용으로 해석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오늘의 우리 역사에 비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수의 문제입니다. 백이라는 공동체에서 한 마리란 숫자는 소수 중의 소수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백분의 일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한다면, 양 백마리 중에 한 마리쯤 자취를 감추었다고 해서 대단할 것 없습니다.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태에 대비한 정책을 세운다면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데 낭비되는 시간과 정력을 분명한 낭비로 지적할 것입니다. 또 99마리의 양 가운데는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어서 가만히 두어도 자연적으로 새끼를 쳐서 한 마리를 더 불어나게 하는 자연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 마리라는 완전 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99라는 공동체를 버리고 제 길을 찾아간 한 마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시끄러운 문제아였을 것이니 총화를 위해서는 차라리 이 한 마리가 없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량으로 따지는 가치관, 많은 것이 좋고 풍족한 것이 좋다고 하는 세상, 수량으로써 옳고 그른 가치 판단을 하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는 일은 어리석고도 분별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량의 세계에서는 소수는 다수에 흡수되어 대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섰습니다. 그가 육십이 많아서 한 마리라도 잃어서는 안된다고 찾아나선 것도 아니고 완전주의자여서 결핍된 하나를 찾아나선 것도 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4%라고 합니다. 이 비율로 말하면 한국 교회는 분명히 한 마리의 양의 처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마치 거드름 피우는 우리 안의 99마리에 속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시는 한 마리의 고귀한 양입니다. 우리가 고귀한 한 마리라는 뜻은 우리의 존재가 99마리의 양에게 의미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하나된 존재로서 소중히 여기고 많은 것보다 적은 것, 거것으로 꾸며나가는 물량보다 진실로써 이루어나가는 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마리의 양의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에 공감을 느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단순히 버림받은 자, 길 잃은 자만을 상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갈 길, 곧 십자가의 길을 상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목자와 한 마리의 양의 관계는 또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관계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천하의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 그러한 귀중한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풀어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을 생각하리라는 말씀입니다.

12월에 접어들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인권주장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경제·문화·환경 문제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인권 문제를 말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인권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써 말하는 것이지 결코 정치적 슬로건은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이기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서 우리는 인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그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인권의 유린을 당하는 소리없는 백성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주의 제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판정에 서서도 양심의 소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걸머진 십자가의 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이 걸머진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교회만이 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공동체 안에서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한 민족으로서 살아나가는 길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길을 따라 나서는 길이 바로 오늘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고로 우리 교회는 민족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마리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의 추적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의 품 안에서 기쁨을 나눌 때까지 어린 교회는 험준한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인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인간의 참된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지키고 잃었던 모습을 다시 찾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1976. 12. 12 부산 인권주간설교)